

억세게 운(運)좋은 여행



권오덕 | 전 대전일보 주필

억세게 운(運)좋은 여행이었다. 여행을 술하게 다녀왔지만 이번 여행처럼 운수 대통한 여행은 처음이었다.

지난 2월 중순, 10일 일정으로 다녀온 뉴질랜드·호주여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행운의 연속이었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행운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됐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어도 호주·뉴질랜드는 나중에 갈 생각으로 남겨 놓았었다. 우선 시차가 짧고, 청정지역의 선진국이어서 나 이 들은 다음에 가도 충분하리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동안 아껴 놓았다가 이번에 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편도 10시간이 넘는데다, 현지에서의 이동시간이 길어 젊은이들도 결코 쉽지 않은 코스였다. 스케줄이 빡빡해 하루에 보통 7~8시간씩 차를 타다보니 체력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필자부부는 무난히 이를 소화해 냈고, 또 아주 만족스럽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더구나 우리 부부에게 크고 작은 행운까지 찾아와 여행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었다. 첫 행운은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잡았다. 오후 5시 인천공항을 이륙한 국적 항공기가 남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도착 1시간여를 남겨 놓았을 때였다. 막 잠에서 깨어난 나는 차창 커튼이 붉게 물들어 있음을 보았다.

마침 우리부부의 좌석이 창가에 있어 얼른 커튼을 열어 제쳐보니 붉은 태양이 구름사이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빨간 태양이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붉은 태양을 나는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떠오르는 태양을 말이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셔터를 계속 눌러댔다.

그 시간 대부분의 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맞은 여행 첫날 아름다운 붉은 태양을 접한 우리 부부는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행운은 이틀째도 이어졌다. 뉴질랜드 남섬 로토루아의 호텔에서 자고 새벽 6시30분쯤 산책하러 인근 주택가에 나갔다가 또 다시 행운을 잡았다.

선명한 쌍무지개를 본 것이다. 어렸을 적 더러 무지개를 본 일은 있으나 쌍 무지개는 처음이었다. 워낙 청정한 국가인데다 전날 비를 뿌려 무지개가 뜬 모양이다. 무지개를 뒤로 하고 동네마음을 돌아보니 대부분 울타리가 없고 대신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심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 같았다.

무궁화를 심은 몇몇 주택도 보였다. 우리 부부가 쌍무지개를 보았다고 하자 모두들 부러워했다. 행운은 뉴질랜드 남섬으로 이어졌다. 퀸스타운의 호텔에서 이른 새벽 식사하러 호텔 식당으로 가던 중 앞마당에 나갔다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다.

하늘에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 감격해 할 말을 잃었다. 문득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니 얼굴...”이라는 50년대 유행가가 떠올라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내가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조용히 노래 불렀다. 식사 후 일행과 함께 다시 나가보니 어느새 별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닷새간의 뉴질랜드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여정인 호주로 갔는데, 행운은 이곳 시드니에서도 이어졌다.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는 높다란 아치형의 하버브리지와 조개껍질 모양의 오페라하우스가 도심 빌딩 숲과 조화를 이루어 무척 아름다웠다. 시드니가 도시 브랜드 경쟁력에서 런던, 파리를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마침 시드니항구에는 거함 퀸 엘리자베스호와 퀸 메리호가 위용을 자랑하고 입항해 있었다. 그

사이를 수많은 요트를 비롯한 크고 작은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어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우리는 곧 이어 어마어마한 오페라하우스의 콘서트홀 내부를 관람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곳에서 시드니교향악단의 리허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리허설 장면은 아무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휘자가 피아니스트인 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74)라는 사실에 눈물 나도록 기뻐했다. 불과 7~8분의 짧은 구경(?)이었지만 이 또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소개한 행운은 이제 설명할 행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뉴질랜드를 떠나고 불과 이틀 뒤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으로 수백 명이 죽고 도시가 파괴된 게 그것이다.

우리가 이틀 늦게 떠났더라면 큰 변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가이드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행은 크게 놀랐다. 일행들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집 사람도 간신히 큰 딸과 전화를 통화했다. 내가 짠 이번 일정과 코스가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었다.

나는 미국 어느 철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올랐다. “인생은 태어남(Birth)에서 죽음(Death)까지다. 그런데 B(Birth)와 D(Death)사이에는 C(Choice 선택)가 있다”고 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성공과 실패, 행운과 불행, 그 대부분이 선택에 달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여행이었다.